# 쉽고 통쾌했던 '조들호'가 그립다

KBS2 '조들호 2' 복잡하고 음울한 전개에 겉도는 코미디 임기응변식 시즌제 한계

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유쾌·상쾌·통 쾌하게 사건을 해결해내는 동네변호사 조 들호에 시청자는 대리만족했다.

그러나 3년 만에 돌아온 조들호는 쉽지 도 통쾌하지도 못하다. 조들호의 트라우마 와 얽힌 스토리는 복잡하고 무겁다. 연출 도 코믹함과 진지함 사이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부유한다.

#### ◇ 시즌1과 너무 다른 화법과 작법

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즌1은 법정극을 표방한 것 치고는 상당히 가볍고 유치했 다. 그러나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변호인은 없는 현실을 배경으 로 의뢰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 몸 다 바치는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시청 자 마음을 훔쳤다.

물론 조들호 역 박신양이 극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끌어나간 덕분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. 하지만 박신양에 더해 고현정까지 합류한 시즌2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을 보면 작품 화법과 작법도 시즌1의 흥행에 작지 않은 역할을 했음을 깨닫게 된다.

시즌2 속 조들호는 초반 시청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.

초반 10회(프리미엄CM 구분 제외 5 회)에 이르기까지 조들호의 과거 트라우 마를 고리로 이자경(고현정 분)과 대립하 게 되는 과정을 풀어내는 데 집중하느라 드라마 특유의 톤을 잃어버렸다.

동네변호사의 친근하고도 분명했던 메 시지가 흐려지면서 통쾌함을 기대한 시청 자는 지루하고 주제 의식을 찾기조차 버거 워졌다. 연출 역시 혼란스럽다. 조들호와 강만수(최승경) 콤비의 코미디는 조들호 의 무거운 개인사와 어울리지 못하고 억지 스럽게 느껴지고, 정작 무게감 있어야 할



KBS 2TV 월화드라마 '동네변호사 조들호2:죄와 벌'의 박신양.

조들호와 이자경 투샷은 우스꽝스럽게 그 대작 한 방으로 경쟁하려는 탓이다. 려진다.

박신양의 고군분투는 여전히 이목을 끌 지만 오락가락하는 극 분위기에 제대로 빛 을 보지 못하는 모양새다. 고현정 역시 특 유의 카리스마를 발휘하지만 이해하기 어 려운 캐릭터를 만나 좀처럼 공감받지 못한 다. 시청률은 5~6%대를 기록 중이다.

◇ 시즌제 드라마 안착, 아직 먼 길인가 '동네변호사 조들호2: 죄와 벌'은 비록 속편 방영에 3년이나 걸리기는 했지만 국 내에서 찾기 어려운 시즌제 드라마라는 점

에서 그 의미가 크다. 최근 드라마 제작 편수가 급증한 상황에 서도 시즌제 드라마는 찾기 어렵다. 너도 나도 스타 캐스팅과 막대한 자본력에 기댄

'동네변호사 조들호'는 서민 변호사의 속 시원한 정의구현이라는 분명한 메시지 와 캐릭터를 지닌 좋은 기획이다. 덕분에 속편도 만들어졌다. 하지만 시즌마다 결이 이렇게 달라서는 또 다른 시즌을 기대하기 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. 스토리와 전개 방식의 변주도 어디까지나 첫 시즌에 시청 자가 호응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.

국내에도 가성비 좋은 시즌제 방식이 안 착하기 위해서는 '동네변호사 조들호'를 비롯해 첫발을 뗀 작품들이 입지를 잘 다 져야 한다. 초반 전개가 아쉬웠던 '동네변 호사 조들호2'가 본래 매력을 되찾아 순항 하기를 손꼽아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 /연합뉴스

# 'SKY캐슬' 22% 거침 없는 질주 '도깨비' 넘어 역대 비지상파 1위

시청률과 화제성 모두 싹쓸이

JTBC 금토극 'SKY 캐슬'〈사진〉이 결국 역대 비지상파 프로그램 최고 시청 률 기록을 갈아치웠다.

20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방송한 이 드라마 18회 시청률은 전국 22.316%(유료가 구)로 집계됐다.

종전 비지상파 프로그램 최고 기록은 tvN '도깨비'(2016~2017)가 보유한 20.5%였다. 2017년 최고의 콘텐츠로 기록된 '도깨비'는 당해 정초인 1월 21 일 시청률 20%를 넘기며 국내 케이블 방송 22년 역사를 새롭게 썼다. 그리고 약 2년 후 'SKY 캐슬'이 비슷한 시기 이 기록을 갈아엎었다.

전날 방송에서는 강준상(정준호 분) 과 한서진(염정아), 김주영(김서형)의 삼자대면이 그려졌다.

총 20부작으로 제작된 'SKY 캐슬'은 판타지 로맨스인 '도깨비'와 결이 다른 블랙코미디이지만, 시청률은 물론 화제 성도 그에 뒤지지 않는 신드롬급 인기를 누린다. 1회 시청률 1.7%로 시작해 입 소문만으로 22%대까지 폭등한 시청률 이 이 현상을 증명한다.

높은 시청률뿐만 아니라 온·오프라인 에서 회자하는 강도와 빈도도 '역대급' 이다. 초반 상류층 입시 전쟁 풍자로 눈 길을 끈 뒤 주요 인물들의 죽음과 관련 된 비밀을 푸는 추리 요소도 더하면서



긴장감을 늦추지 않은 게 유효한 전략이

심지어 결말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 면서 온라인에서는 시청자끼리 추측한 내용이 '스포일러'라는 이름으로 돌았 고, 급기야는 우려한 대본 유출 사태까 지 벌어져 제작진이 수사를 의뢰하기도

이 같은 폭발적인 반응은 'SKY 캐 슬'이 남은 3회 방송 기간 자체 최고 성 적을 얼마나 더 갱신할 수 있을지에 대 한 관심으로 이어진다.

병역기피 영원한 '주홍글씨' … 제대하면 승승장구

## 연예계 병역인식 확 달라졌軍

병역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 준(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·43)이 한국 복귀를 시도하며 연예인 병역에 관심이

과거에는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었지만, 이 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.

적발되면 연예 활동 자체가 불투명해 진다는 것을 '유승준 사태'로 톡톡히 학 습한 덕분이다. 군대를 다녀오면 오히려 이미지가 개선되고 변함없는 인기를 누 리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한몫했다.

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'아름다 운 청년'으로 불리며 뜨겁게 사랑받았 다. 하지만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 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. 비난 여론이 거세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.

이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면서도 한 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5월 인 터넷 생중계를 통해 무릎을 꿇으며 "어 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"고 사죄했다.

그는 지난 18일 국내에서 12년 만에 새 앨범 '어나더 데이' (Another day )를 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차

연루됐지만 병역 의무를 마친 뒤 대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. 제대 후 왕성한 활동을 펼치는 스타들

싸이, 송승헌, 장혁 등도 과거 비리에

송중기는 전역 후 출연한 '태양의 후

예'를 통해 톱스타로 도약했다. 심지어





'태양의 후예'에서 특전사를 연기하면서 군 복무 경험을 십분 살렸다.

현빈은 드라마 '시크릿 가든'으로 인 기 절정일 때 해병대에 입대해 스포트라 이트를 받았고, 배우 윤시윤도 해병대를 선택했다.

이처럼 달라진 분위기에 새해 벽두부 터 아이돌 입대 러시가 이어진다. 비투 비 이창섭이 지난 14일 입대했으며 B1 A4 신우가 오는 22일 입대한다. 래퍼 한해, 비투비 이민혁은 다음 달 예정이 며 2AM 정진운은 3월 군대에 간다.

/연합뉴스

#### TV프로그램

21일

※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.

KBC/SBS
와이드 1~2부
모닝 730
365 스캔들
아침
뉴스 생활경제 생활뉴스
기 탐구생활 조리 맛있는 수업
12뉴스 네트워크 뉴스 통조림 특집 파워인터뷰
365
브리핑
특선 다큐멘터리 장벽 365
오뉴스 저녁 뉴스
고착 세상에 이런일이(재)
365 연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송 TV블로그 꼼지락
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
이몽2 내운명 1~2부

### EBS<sub>1</sub>

05:00 왕초보영어 05: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

06:20 세계테마기행 07: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

07:30 띠띠뽀띠띠뽀 08:00 딩동댕 유치원1~2 08:30 고고다이노 공룡탐험대

09:00 뽀로로와 노래해요 09:15 뽀롱뽀롱 뽀로로

06:00 한국기행(재)

08:45 방귀대장 뿡뿡이

09: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: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0:30 한국기행(재)

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

10:50 최고의 요리비결

13:00 다큐 오늘 13:10 고양이를 부탁해 13:40 배워서 남줄랩(재)

11:20 세계테마기행(재) 12:00 EBS 정오뉴스

12:10 극한직업 스페셜

14:30 <del>몬</del>카트(재) 15:00 마샤와 곰 스페셜 15:15 파프리카

15:25 그림 그려줘 루이 15:45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

16:15 뚝딱맨 16:30 방귀대장 뿡뿡이(재) 16:45 딩동댕 유치원1~2(재)

17:15 마샤와 곰

고수의 국밥 한 그릇〉 21:50 EBS 다큐프라임

21:30 한국기행

22:45 우리 가족 거리 좁히기-부모성적표

23:55 배워서 남줄랩 24:50 세계의 드라마

17:30 띠띠뽀띠띠뽀

19:00 몬카트

19:30 EBS 뉴스

20:40 세계테마기행

18:00 생방송 톡!톡! 보니하니1~5

19: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

〈지금 여기 우리,타이완 1부

사람이 만든 풍경, 펑후〉

〈겨울, 고수를 만나다 1부

#### 1월 21일 (음 12월 16일 戊午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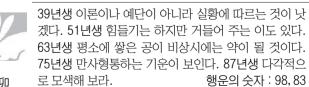
36년생 균형과 실리가 주안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. 48년 생 핵심 위주로 다루는 것이 현명하다. 60년생 자칫 잘못 하다가는 풀러 갔다가 오히려 얽히게 된다. 72년생 훗날 을 기약하는 것이 백 번 낫다. 84년생 드러나지는 않았지 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. 행운의 숫자 : 08, 47



37년생 세밀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. 49년생 꼭 이행해 야 할 바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보자. 61년생 제반 준비를 해야 하리라. 73년생 방심하다가는 휘둘릴 수도 있으니 적당한 간격을 둬라. 85년생 사전에 대처해 행운의 숫자 : 56, 79 야 차질이 없을 것이다.



38년생 종합적으로 살피되 결정적인 판단은 보류하자. 50년생 반추해 본다면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. 62 년생 세부적인 점검과 면밀한 분석이 절실한 시점이다. 74년생 성심을 다 하면 된다. 86년생 취약점을 보완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니라. 행운의 숫자: 45, 16





40년생 뜻 밖에 나타난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. 52년생 용호상박의 치열한 싸움이 보인다. 64년생 드디어 본색 을 드러내리라. 76년생 핵심 가치를 간과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. 88년생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 니 실행해야 한다. 행운의 숫자: 65, 56



41년생 응달에도 햇볕 들 날이 있다. 53년생 가변적임을 감안하고 대처하라. 65년생 의식의 전환이 용이하다. 77년생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아 야 한다. 89년생 당분간 말없이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 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행운의 숫자: 07,30



午

42년생 완벽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불리하다. 54년생 실제로 접하게 되는 마당이다. 66년생 흡족한 결과를 기 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. 78년생 충분한 의사 타진이 선행 되어야 폐해가 따르지 않는다. 90년생 변화는 새로운 발 전을 기약할 것이다. 행운의 숫자 : 34,69



未

申

酉

43년생 양질을 추구해야 합리적이다. 55년생 다른 관점 에서 조명해 보자. 67년생 성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니 본 격적으로 시도해도 된다. 79년생 결과적으로는 대동소 이 하게 될 것이니라. 91년생 한 번에 한정된 것이니 확 대 해석할 필요 없다. 행운의 숫자: 01, 11



44년생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보충해줘야만 한다. 56년생 성의를 다하는 것이 유익하리라. 68년생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겠다. 80년생 지나치다면 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. 92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 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. 행운의 숫자 : 47, 48



45년생 유동적 상황임을 감안하자. 57년생 굳이 따라할 필요까지는 없느니라. 69년생 망각으로 인한 폐해가 나 타날 수 있다. 81년생 있을 때 잘 지켜야지 없어지고 나 면 공허하리라. 93년생 맹점을 보지 못한다면 결정적인 행운의 숫자 : 38,90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다.



34년생 외부 활동의 효과가 크겠다. 46년생 희망을 잃지 말고 정성을 다하도록 하자. 58년생 기본적인 것의 파악 에 충실해야만 중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. 70년생 살펴만 보아도 쉽게 파악 될 것이다. 82년생 새로운 방법 을 모색 하자. 행운의 숫자: 13,95



35년생 당장 해결할 필요까지는 없으니 서두르지 말라. 47년생 앞서 가려 한다면 오히려 악화 되리라. 59년생 깊이 생각한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수하지 않게 한 다. 71년생 안정된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니라. 83년생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. 행운의 숫자: 63,02

"전화상담도 받습니다. 광주일보 독자환영!" ☎010-9790-8237